



기획연구

김정일의 '경제 지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서동만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정일의 ‘경제 지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시동만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문제의 제기

김 일성 사후 식량난의 악화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확실한 설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위기 실상에 대해서는 식량 지원차 방만한 국제 비정부 단체 관계자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위기가 정치적 수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증언이나 설명이 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권력 중심부 수준에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비롯하여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다. 더구나 주민 생활 수준에서 당 및 행정 간부와 일반 주민과의 관계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북한의 공식 자료가 갖는 설명력은 전체 문제를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다만, 북한의 위기 상황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공식 자료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려 하고 있는지 공식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것도 상황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것이 압도적으로 ‘명분의 정치’라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그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 요소가 된다. 그런데 북한체제에 경제적으로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90년대부터 김일성이 사망하기까지의 시기를 다룬 「김일성저작집」이 김일성 사후 간행되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들어서지만 경제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80년대 시기에 관해서는 이미 1992년부터 저작집이 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현상을 전하는 김정일의 최근

연실이 입수되어 공개되고도 있다.

김일성 사후 3년간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 통치'라는 방식을 통해 북한체제를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이 저작집은 가장 중요한 유훈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유훈은 실제 있었던 그대로 '죽은 자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유훈을 이용해 통치하려는 '산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저작집 속에 공개된 '김일성의 발언'에는 편집자인 김정일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북한체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의 공식 승계를 선포하였다. 김일성 사후 3년간 김정일은 군의 책임자로서 최고 통치 행위를 해왔으며, 이는 '군에 의거한 위기관리체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과 함께 앞으로 그의 통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체제 운영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당면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전망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일의 경제 분야에 대한 '지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실상을 추적해보고, 이를 최근 공개된 북한 공

식 문헌의 설명과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점쳐보려 한다.

80년대의 북한과 당대회의 의미

현재 북한체제의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제6차당대회가 개최된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려 한다. 국가사회주의체제 일반이 그렇지만 당대회는 하나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정치적 행사로서 체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노선뿐만 아니라 당의 총비서를 비롯하여 주요 간부 인사가 결정되며 이후 당 지도부 구성에서 결정적이다. 1980년 제6차당대회가 열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후 5년째가 되는 1985년에도 다음 당대회는 열리지 못했으며,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제7차당대회는 개최되지 못한 채로 이번 승계 절차를 맞이하였다.

제7차당대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설명이 되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1992년 4월 1일 발행된 「김일성 저작집」 제38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김일성은 1983년 6월 16~17일 개최된 당 중앙위 제6기 제7차전원회의에서의 결론에서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주

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몇해 안에 주민 생활을 쑥 높이고 당 제7차대회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발언하였다.¹⁾ 동년 6월 30일, 7월 1일과 5일 세 차례 가진 페루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과의 회담에서도 “우리는 1985년까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10대 전망 목표 가운데서 중요한 고지들을 기본적으로 점령하고 1986년에 우리 당 제7차대회를 열려고 합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²⁾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은 1983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 텍스트가 공표된 1992년도 4월 시점에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1992년 4월 9일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었고 김정일은 원수 칭호를 받았으며,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정무원에서 독립하여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993년 4월에는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물려받아 권력 승계의 마지막 수순을 밟는다. 저작집 제38권은 1983년 6월부터 1984년 12월까지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1982년 1월부터 1983년 중반까지를 포함한 제37권은 38권보다 늦게 1992년 11월 30일에 발행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

가 북한의 경제 사정, 그 가운데서도 주민 소비 생활 수준 상승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80년대 북한 경제는 국가사회주의경제시스템이 그 한계에 다다랐을 뿐 아니라 정체 상태에 빠지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 경제는 국가사회주의시스템이 성장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80년대의 새로운 과제인 기술 혁신과 소비 생활 수준 향상까지 실현해야 한다는 힘겨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김정일 경제 지도의 양면성: 주민 소비 생활과 '속도전'

북한 공식 문헌인 「조선중앙년감」의 각 연도판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 지도가 중요한 항목으로 구분·서술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현지 지도는 해당 부문에 대한 김정일과 김일성의 관여를 뜻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 관계를 추적해보면 1980년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 김정일은 주로 경공업 부문과 평양시 건설 부문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래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가 시작된 것은 1975년부터였

1) 조선노동당출판사(1997. 4), 「김일성서적집」 제38권. 평양, p. 27.

2) 위의 책, p. 99.

다. 그러나 이때 김정일이 처음으로 발기한 '70일 전투'는 많은 후유증을 남겼고 이후 1980년까지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는 공식 문헌에는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1980년부터 다시 경제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에 정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때부터 그는 주민 소비 생활과 직접 관련을 갖는 경공업 부문이나 수출 부문, 그리고 평양시의 대기념비적 건축물 건설, 창광거리 등 새로운 평양 시가지 건설을 직접 지도한다. 김정일은 북한 경제가 가장 낙후되었던 분야이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문, 수출품 생산 부문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전자 산업 또한 김정일이 손을 댄 분야였다. 북한 경제의 발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를 갖는 평양의 대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시가지 건설도 그의 몫이었다.³⁾

이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김정일이 그 성과가 쉽게 나타나며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쉬운 부문을 주로 담당하게 하려는 김일성의 배려이기도 했을 것이다. 1984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40 일 이상이나 구소련·동유럽을 방

문한 다음, 주민 소비 생활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된 데는 역으로 김정일의 숨은 역할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김정일은 이러한 부문만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의 조직·선전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선동'이란 분야를 개척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른바 '속도전'이다. 속도전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이나 동유럽의 부분적인 개혁 노선과는 다른 식으로 경제 침체를 만회해보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50년대 후반 천리마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동원 방식을 답습한 것이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본격화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경제 부문과 관련시켜 본다면, 전통적인 동원 방식에 대해 젊은 세대를 주도층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였으며, 3대혁명소조는 김정일이 주도한 속도전에서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김정일이 속도전 방식을 지휘하기 시작한 것은 6개년계획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1974년 2월경 전개된 '70일 전투'가 처음이었다.⁴⁾ 그러나 70일 전투에서는 공업 생산이 평

3)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은 생략한다. 80년대 이후 「조선중앙년감」 각년노판에 나타난 김정일의 현지 지도 및 경제 건설 분야에 대한 서술을 참조.

균 1.7 배로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많은 문제를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1974, 75년 시기를 포함하는 「김일성저작집」 제29권에는 이 70일 전투와 관련된 발언은 일체 게재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조선중앙년감」 1975년판과 1976년판에는 70일 전투의 성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서술이 실려있으며, 당시 당 내에서 김정일을 지칭하는 호칭이었던 '영광스런 당 중앙'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김정일이 간행을 주도한 「조선전사」 제32권에서도 70일 전투는 그의 중요한 치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1976년 활동을 다룬 「조선중앙년감」 1977년판부터 경제 부문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도 포함하여 '당 중앙'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서술이 사라진다.⁵⁾ 이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70일 전투의 후유증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가 다시 공식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6차

당대회가 열린 해인 1980년부터이다.⁶⁾ 다만, 이 시기까지 김정일이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2차 7개년계획이 시작되자 1978년부터 경제 선동 부문에 복귀하였다. 1978년 5월말 '100일 전투', 1978년초 '수송 혁명 200일 전투' 등이 김정일이 조직한 경제 선동으로 대표적인 것이다.⁷⁾ 여기서 경제 부문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김정일의 집요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이 100일 운동도 단기적인 성과는 올렸으나 설비의 혹사, 원료나 자재 공급의 불균형 등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이 100일 운동에 대해서는 1981년경 김일성 스스로도 비판을 가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김정일은 거론되지 않고 정무원 간부 등 경제 간부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⁸⁾ 이미 80년대 초부터 속도전 방식에 의한 경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자재 상사를 통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던 공식적인 자재공급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만큼 형클어지고 있었다.⁹⁾

4) '70일 전투'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조선전사」 제32권, pp. 224~244 참조.

5) 중앙일보 특별 취재반(1994),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중앙일보사.

6) 「조선중앙년감」, 1975, 76, 77년판; 「조선전사」 제32권, pp. 224~243. 일본에서 간행된 진기인 卓珍, 「偉大な指導者 金正日」, 東京, 未來社에서도 70일 전투를 김정일의 주요 치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7) 「조선중앙년감」 1981년판, pp. 173~178 참조.

8) 「조선전사」 제33권, pp. 35~44, 71~77.

9) 「김일성저작집」 제36권, pp. 56~57.

그렇지만 제2차 7개년계획이 예상외로 부진하자 김정일은 1982년 7월부터 다시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을 발기하여 경제 건설을 위한 대중 동원을 조직하게 된다. 그런데 속도전 식에 따른 종래의 대중 동원 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외 개방에서 출구를 찾으려 하였다. 1984년 1월부터 향후 5~6년 안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교를 맺은 자본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국교가 없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무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984년에는 김일성이 구소련·몽구를 40일에 걸쳐 방문하였다. 김일성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주민 생활 격차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방문하고 경제특구도 시찰하였다. 이어서 김정일도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경제특구를 시찰하였다. 1984년 9월 제정된 합영법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자기 인식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성과는 부진하였다. 1984년 1월 정무원 총리는 리종옥에서 강성산으로 교체되었다. 계획이 만료하는 해인

1984년 말까지 계획의 성과에 대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일성 자신도 1985년 신년사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달성 내용은 돌연 1985년 2월에 가서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공표된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 계획은 정상적이라면 1985년에 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새로운 제3차 7개년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1986년 12월까지 거의 2년이 소요되었다.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졌으리라고 추측된다.¹⁰⁾ 1986년 2월에는 계획 입안의 책임자인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인 홍성룡이 해임되고 홍성남으로 교체되었다. 결국, 1986년에 당대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다만, 심기 일전을 위한 목적에서 새로이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고 12월 새 정무원이 발족하면서 총리는 강성산에서 리근모로 교체되었다.

제2차 7개년계획의 완료와 함께 이 속도전 방식은 표면에는 등장하지 않게 된다. 물론, 김정일이 주도한 북한의 변화는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80년대 그가 후계자로 승인된 이후 북한 사회 특히, 평양 시가지의 모습이 밝아지고, 주민들의 의생활에

10) 위의 책, p. 69.

11) 제2차 7개년계획에 대한 분석으로는, 小牧輝夫(1988), "北朝鮮經濟の現狀と展望", 小此木政夫編 「岐路に立つ北朝鮮」, 日本國際問題研究所를 참조.

있어서 화려한 색조의 등장, 음악, 예술, 영화, 연극 등 문화 생활 분야에서의 변화는 그러한 예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정체 상태에 빠진 국가사회주의시스템에 변화를 도입하려는 정책과는 배치되는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는 즉, 속도전 방식을 주도하는 위치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국가사회주의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제 운영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주식제와 경제 지도

한편, 1995년 9월 5일, 20일에 각각 간행된 「김일성저작집」 제41, 42권에는 이러한 경제 분야의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김일성의 말을 통한다는 방법으로 밝혀져 있다. 이 두 권은 구소련·동구의 체제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의 극적인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김일성은 1988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꾼협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주식제가 나온 다음부터 나는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 주식으로서 당 사업과 국가 사업을 주로 보면서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일과 그밖의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경제 사업은 총리가 전적으로 맡아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무원을 내은 것은 정무원이 경제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나이가 많아 그전처럼 현지 지도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젊은 사람이 총리로서 현지 지도를 하면서 경제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한 생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각 수상을 할 때에는 경제 사업이 잘 되었으나 정무원을 따로 내은 다음부터는 별로 잘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¹²⁾ 1988년 1월 당시 정무원 총리는 리근모였으나 그는 1988년 12월 건강 상의 이유로 연형묵으로 교체되었다.

정무원 총리가 교체된 이후에도 김일성의 비슷한 발언이 실려있다. 1989년 5월 11, 13일 열린 중앙인민위원회 제8기 제26차회의에서 김일성은 “지난 기간 정무원이 제 구실을 바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주식으로서 정무원 총리의 대리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주식이 정무원 총리의 대리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고 하며 “총리가 새로 임명된 다음 정무원 사업

12) 「김일성저작집」 제41권, pp. 15~16.

이 잘되어가고 있습니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당의 경제 정책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은 원래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이 옳습니다”고 주장한다.¹³⁾ 그런데 여기서 김일성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게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비준한 성원들로” 운영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주석과 부주석들, 정무원 총리와 부총리들, 당 중앙위원회 경제 비서들,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과 경제정책위원장, 국가검열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중요한 경제 문제들을 토의하는 조건에서 앞으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는 그밖의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만 토의”하려고 한다고 발언하고도 있다.¹⁴⁾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은 텍스트의 공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김정일에 대한 언급은 일체 나오지 않는다. 물론, 당시에 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비판은 김일성이라도 할리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러한 발언이 실렸다는 사실 자체에서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우선 김정일을 제외시키고 김일성도 경제 실책에서 면책시키려는 강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정치국의 의결 기능보다 비서국의 집행 기능을 우위에 두는 방식이며, 경제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정치국이 아니라 비서국이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당 운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국의 담당 분야에서 경제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속도전 방식은 여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정부는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남한과 경쟁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이미 구소련·동구의 개혁 정책은 서울올림픽 참가를 기정 사실화시키고 있었으며 정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개혁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한 정부의 북방 정책에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북한은 남한의 서울올림픽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이 해에는 정부 수립 40년을 맞이하여 대

13) 위의 책, p. 404.

14) 위의 책, pp. 407~408.

축전을 계획하고 1989년에는 평양세계청년 학생축전을 계획한다.

1988년 2월 20일 당 정치국회의가 개최되어 전체 당원에게 보내는 당 중앙위원회의 편지가 채택되어 '공화국 창건 40돌을 맞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200일 전투'를 발기한다. 2월 26일에는 1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일 전투를 결의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열리고,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청년학생의 횃불 시위 행진이 전개된다. 이 200일 전투의 발기와 관련된 북한의 신문은 이를 김정일의 지도와 결부시키고 있다. 특히, 200일 전투를 앞에서 언급한 1978년의 '70일 전투'와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¹⁵⁾ 이는 누가 보아도 분명히 김정일이 주도한 것이었다. 200일 전투가 완료한 9월 2일에는 전국에서 노력 영웅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영웅대회'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어 200일 전투에 대한 공로 표창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200일 전투'를 벌일 것을 호소한다.¹⁶⁾ 이러한 구호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되는 1989년까지 '전투'가 계속되는 것을 뜻하였다.

현재 9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악화한 이

유로는 이미 오랜 기간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이 누적된 것 이외에도, 구소련·동구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을 잃으면서 극도의 원료·자재 부족에 시달리게 된 데다가, 구소련으로부터 경화 결제를 요구받으면서 원유 공급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공장 가동률이 극도로 저하된 데 따른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저작집 곳곳에서 김일성 스스로가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비용으로 인해 북한 주민은 전국적인 물자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다.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된 거대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평양의 도시 미관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비생산적인 지출이었다. 이것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물자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¹⁷⁾

한편, 「김일성저작집」 제41권에는 '200일 전투'와 관련된 김일성의 발언이 실려있다. 1988년 3월 7~11일 열린 당 중앙위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을 통해 김일

15) 「로동신문」(1988. 2.22~3.4) 참조.

16) 「로동신문」(1988. 8.31~9.14) 참조.

17) 「통일 한국」, 1996년부터 1997년 가호에 걸쳐 연재 중인 말북사들의 인터뷰 참조.

성은 간부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200일 전투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200일 전투의 지휘체계를 꾸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중앙지휘부의 최고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으로 정무원 총리와 당 중앙위 경제 계획 담당 비서, 금속 및 채취 공업 담당 부총리 등 3 명을 두며, 국가계획위원장이 작전국장, 정무원의 위원장, 부장들은 군단장이 된다고 군대 지휘부에 비유하였다.¹⁸⁾ 이것은 정무원 중심의 진용이다. 그런데 당시 보도로는 200일 전투의 지휘자로 되어있던 김정일이 여기서선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제6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했다는 김일성의 결론이다. 당시 「로동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 회의의 의제는 ① 과학·교육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② 주민보건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③ 조직 문제였다. 보도에 의하면, 주제에 대하여 당비서 최태복이 보고를 하고 김일성이 중요한 결론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⁹⁾ 이 공식 보도에서 200일 전투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김일성저작집」 제41권에는 "과학·교육 사업과 주민

보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회의에서의 김일성의 또 다른 결론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한 당시의 보도인 「로동신문」 1988년 10월 15일자에 200일 전투가 시작된 경위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여기서는 2월 27일 '중앙책임일꾼협의회'에서 전투지휘체계가 확립되어 3월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행정 경제 일꾼들을 도와주며 ...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을 공장·기업에 파견하는 대책을 취해주시었다"고 전하고 있다.²⁰⁾ 이 중앙일꾼협의회와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나중에 편집·공표된 「김일성저작집」에 실린 내용과 당시의 보도가 어긋나는 데 대해서는 현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를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김정일의 지휘 하에 편집되었다고 생각되는 「김일성저작집」 제41권의 내용으로부터 거꾸로 김정일은 200일 전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자신과 결부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유추·해석할 수 있다. 더욱 확대 해석한다면 200일 전투 실시를 둘러싸고 지도부 내에 이견이 있었다

18) 「김일성저작집」 제41권, pp. 87~89.

19) 「로동신문」(1988. 3.12).

20) 「로동신문」(1988. 10.15).

고 할 수도 있다.

저작집 제42권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1990년 4월 4일 경제 학자들과 가진 담화에서 김일성은 경제 관리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내가 있을 때 경제 관리 사업이 잘된 것은 내가 젊었을 때였으므로 당과 국가, 경제 사업 전반을 다 틀어쥐고 직접 지도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관리가 바로 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주식제를 내오고 정부원이 경제 사업을 맡아 지도하게 된 다음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식제를 내온 다음 나는 주로 국가 사업 전반을 보고 당 사업은 김정일 동지가 맡아 하였으며 경제 사업은 정무원 총리가 맡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당 사업에서는 많은 개선올 가져왔고 당이 더욱 튼튼해졌지만 경제 사업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²¹⁾ 그렇지만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무원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경제 사업체계가 변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4년의 임기대로 1990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어 687 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헌법 규정대로 치르게 되었으나 당대회는 열지 못했다. 제3차 7개년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계획 실행 상황은 극히 부진했다. 사회주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고 구소련·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경화 결제를 요구받으면서 원유 수입 감소로 인한 에너지난, 그밖의 원료·자재난이 가중되어간다. 전반적으로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의 정상화’가 절박한 과제가 된다. 에너지난·물자난·외화난이 경제 전반에 만연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운용이 곤란해져간다. 출구는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대외 개방에서 찾아지게 된다. 1991년말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고 합영법이 새로 제정된다.²²⁾ 연형묵은 유임되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홍성남 대신 최영림이 임명된 외에 경제각료에 큰 변화는 없다.

1992년 12월 정무원 총리에 강성산이 다

21) 「김일성저작집」 제41권, pp. 277~278.

22) 1996년 3월 15일, 6월 21일에 각각 간행된 「김일성저작집」 제43, 44권에는 이러한 경제 분야의 부진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이 생생하게 실려있다. 이 두 권은 1991년 1월부터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4년 7월까지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는 구소련·동구의 붕괴가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직격하기 시작하여 북한체제가 이후 김일성 사망 직전까지 경제적 위기에 빠져드는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제44권에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 북한 경제 간부들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여 경제 부문에 대한 김일성의 유훈이 된 7월 6일 경제 부문 책임일꾼협의회에서의 결론이 게재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 임명되었다. 그는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창설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1992년 9월 함경남도 당 비서 재직 당시 강성산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²³⁾ 1992년 12월 14일 총리를 교체하고 나서 가진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연합회의에서 김일성은 연형묵에 대해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훈계하고 있다.²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형묵은 1989년 5월에는 김일성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주도한 연형묵이 교체된 것은 대남 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때 남북 경제 협력을 담당하던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장 김달현은 정치국후보위원과 대외경제위원장에서 해임되고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전임되었다.

군직 취임 이후 김정일의 경제 지도

90년대에 공개된 「김일성저작집」에서는 김정일의 경제 분야에서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이기는 보다는 편집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적 역할은 당시 신문이나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일이 80년대부터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역할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이 되고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 부문을 장악해가는 시기부터는 어떠했는가. 1991년 12월 당 중앙위 제 6기 제19차전원회의와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 열린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김일성은 “내가 이제는 팔십 고령이므로 최고사령관으로서 전군을 통솔하기 곤란하다”고 하며, “이제부터 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문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⁵⁾ 김정일은 권력 승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인 군을 장악해가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공식 매체에 보도되는 현지 지도는 해당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관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를 기준으로 보면, 1989년에는 평양시 건설 사업과 경공업 제품 즉, 주민 소비품 생산 분야

23) 「김일성저작집」 제43권, pp. 417~420.

24) 「김일성저작집」 제44권, p. 2.

25) 「김일성저작집」 제43권, p. 261.

를 관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린 1989년은 김정일이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에서 절정에 달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에는 량강도와 자강도를 현지 지도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²⁷⁾ 이는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된 200일 전투의 후유증때문일지도 모른다. 1991년에는 완공된 광복거리의 백화점을 시찰했다는 집에서 평양시 건설 사업은 여전히 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해에 중요한 것으로 '정춘실운동'의 발기를 들 수 있다.²⁸⁾ 이 운동은 김일성이 1991년 9월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장 정춘실을 방문하면서 개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조직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²⁹⁾ 이 운동은 상업 봉사 부문 근로자나 간부들이 모범적인 정춘실을 따라 배움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 자세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대중 동원 사업이다. 김정일은 상업 유통 부문을 관장하면서 주민 소비 생활 부문에 대한 자신의 지도를 대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여기서 주민 소비 생활을 중시한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하지만,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고석적인 대중 동원 방식이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1991년 12월에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지만,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1992년에 그는 완공된 애국천연색텔레비전조립공장과 건조된 대형 화객선 만경봉-92호를 각각 시찰하고 해당되는 교시를 내리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일 동포와의 합영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³⁰⁾ 이는 그가 합영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실이다.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이 해부터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는 공식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는다. 이 해는 제3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우리식사회주의 총진군 속도'라는 구호가 등장하지만, 김정일의 구체적인 관여는 알 수 없다. 「조선중앙년감」 1993년판은 "석탄, 전력, 금속 공업의 실태를 수시로 료해하시고 이 부문들에서 끊임

26) 「조선중앙년감」(1990), p. 65.

27) 「조선중앙년감」(1991), pp. 113~114.

28) 「조선중앙년감」(1992), p. 159.

29) 정춘실운동과 김일성의 관계에 대해서, 김일성(1991. 9.19), "인민들은 남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주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 지강노령위원회 책임비서,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제43권, pp. 212~218.

30) 「조선중앙년감」(1993), pp. 169~170.

없는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도록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다"고 설명한다.³¹⁾ 국방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종래의 경제 선동을 다시 주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속도전'은 김정일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만큼 그의 관여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3차 7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은 부진했다.³²⁾ 1993년 12월 8일 열린 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총리 강성산이 계획을 총괄하는 보고를 담당하여, '앞으로 2~3년간을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중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갈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³³⁾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결론의 텍스트도 「김일성저작집」 제44권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김일성은 스탈린을 찬양하고 후르시초프를 비난하기까지 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다는 완강한 자세를 견지한다. 그는 30년대 후반 항일무장 투쟁 당시의 어려웠던 시절이나 50년대 천리마운동 당시의 곤란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고, 다시 당원들에게 '천리마에 90년대

속도를 가한 기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³⁴⁾ 이 '90년대 속도'와 김정일의 관련도 당시의 공식 문헌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미 이때부터 속도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자신도 의식하고 있었거나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7월 6일 열린 경제 부문 책임일꾼협의회에서 마지막까지 경제 지도에서 간부들의 문제점을 질타하다가 7월 8일 사망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 결론이 「김일성저작집」 제44권의 마지막 부분이다.³⁵⁾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성산이 보고를 담당한 이후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는 공식 석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1993년 12월에는 김달현도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서 해임된다. 후임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홍석형이다. 강성산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건강 상의 이유라고 생각되지만, 후임 총리로 교체되지 않고 사실상 계속 공식 상태인 데는 강성산 개

31) 위의 책, p. 168.

32) 3차 7개년계획에 대해서는, 小牧輝夫(1994), "對外開放を摸索する北朝鮮經濟", 小此木政夫編,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日本國際問題研究所를 참조.

33) 「로동신문」(1993. 12.9).

34) 위의 책, pp. 272~290.

35) 위의 책, pp. 474~490.

인의 문제 차원이 아닌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는 공식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누가 들어서든 풀 수 없는 북한 경제 위기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 발언이 지적하는 주식제 하의 경제에 대한 정무원 책임이 갖는 문제점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로운 총리 임명을 미루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³⁶⁾ 다른 한편으로 국가 주식도 공식 중인데 정무원 총리만 새로 임명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경제 부분과의 관련을 시사해주는 북한 공식 문헌을 최근 남한 정보 당국이 입수하여 공개하고 있다.³⁷⁾ 이 문헌은 식량난 이후 북한 당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것으로, 1996년 12월 7일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을 맞이하여 대학을 방문, 연설한 텍스트이다. 김정일은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³⁸⁾

“지금처럼 정세가 복잡한 때에 내가 경제 실무 사업까지 맡아보면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요 부문을 틀어쥐어야지 경제 실무 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서 놀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 사업에 맡려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경제 사업에 맡려들면 당 사업도 못하고 군대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당부 하시었습니다. … 경제 사업은 다른 일꾼들과 행정 경제 일꾼들이 책임지고 하여야 합니다.”

이 발언은 문맥으로 보아 김정일이 군사 부문을 담당한 이후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업무 분담 차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경제 사업에 손을 댔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즉 김정일이 경제 사업에 ‘맡려들은’ 경험이 있었던 데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성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이 발언에서 김정일은

36)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주식제 폐지 개혁설은 이 점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점이다. 공식적인 확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정은 금물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이면에 있는 문제 의식은 앞에서 언급한 김일성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37) 「월간조선」(1997. 4), pp. 305~317.

38) 위의 책, p. 309.

당 간부들의 '형식주의·요령주의'를 포함하여 무사안일한 사업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해가 되어 1997년 1월 24~27일 '전당 당 일꾼회의'가 개최되어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당 일꾼들의 사업 방법과 일본 내에서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토의"되었다. 회의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1996년 12월 7일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구호도 나붙었다.³⁹⁾ 김일성대학에서 한 김정일 연설은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김정일은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고 있다. 이 서한은 북한 공식 매체에도 공표된 것이 아니지만 최근 정보 당국이 입수한 그 텍스트를 인용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⁴⁰⁾

이 서한은 당 일꾼의 본위주의·형식주의·주관주의·패배주의를 다시 강력히 비판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형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그

동안 정무원책임제·정무원중심제로 하였으나 당이 조직과 지도를 잘못해서 경제 사업 및 식량 생산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2년여 동안 국사 중의 국사인 군대 사업을 잘했으니 이제는 당이 책임지고 경제에 힘쓸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식량 문제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차 소비품 해결을 위해 당 일꾼은 고난의 행군의 돌격대로서 출선수범"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한다.⁴¹⁾ 이 서한에 대한 해석에서 백학순 박사는 전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교수 조명철氏의 견해도 참고로 하면서, 김정일이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떨어져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에 책임을 맡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 변화를 개방·개혁으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징후로 간주하고 있다.

맺음말: 경제 지도의 성격과 개혁·개방

속도나 폭에 문제는 있으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은 최근 북한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정책에서 느낄 수 있으며, 이미 신문 보도나 많은 분석에서 지적되

39) 「로동신문」(1997. 1.28).

40) 백학순(1997. 9), "북한 경제 실패에 대한 하나의 해석 -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경제」.

41) 백학순, 위역 논문, p. 66, 74에서 재인용.

고 있으므로 여기서 일일이 지적할 것까지도 없을 것이다. 백학순 박사는 김정일 서한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일성 사후 3년간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까지 포함하여 정치와 경제 등 중요 부문을 통합하여 국가 전략을 짜는 '최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최고 리더십의 부재'로 파악하고, 이를 북한 경제가 걸잡을 수 없는 위기 상태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⁴²⁾ 김일성 사후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 제기로서 경정할 만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김정일 발언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좀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김정일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경제에 대한 리더십은 완전히 승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죽음을 맞이했고, 걸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경제난 속에서 군이라도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군 조직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가 일시적이거나 경제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전가의 보도였

던 속도전 방식의 후유증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김일성 자신이 간주했고 김정일 스스로도 가장 우려했던 측면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경제에 대한 당의 역할이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그 정치 사상적 동원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무원의 행정적 지도와 당의 정치적 지도(김정일의 경우, '속도전')와의 사이에서 김일성은 균형을 잡으며 전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그 균형이 무너지고만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없어진 상태에서 군의 조직적 효율성 및 물리적 폭력을 통해 조정을 피하려 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속성상 정치적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한 간접적이라 해도 경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 직접적인 경제 운영에 있어서 당과 군이 접하는 비중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당·정·군의 숏기구가 무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의 특성상 우선 당의 경우, 경제 부문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차치하고라도 당이 직접 관할하는 경제 부문은 대

42) 백학순, 위의 논문, pp. 62~63.

외 경제 협력이나 무역 부문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의 경우, 관장하는 대외 부문에서는 당에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군수 부문인 이른바 '제2 경제' 부문은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부터 관행이 되어온 건설 분야에 대한 군 부대 병력 투입도 공식 경제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물자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오히려 그는 가장 실속있는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군 관계 행사에만 참가하고 현지 지도도 군 부대나 군 관련 시설 및 공사 현장만 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적어도 1994년 7월부터 1995년 수해 이전까지는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여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자신을 군사적 지도자로서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은 수해 이후 1995년 10월 당 창건 50돌 기념 행사부터는 권력 승계 절차라

는 것으로부터 군을 통한 위기관리체제라는 것으로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1996년 1월부터 천명된 '고난의 행군'을 통한 '혁명적 군인 정신'의 강조이다. 김정일의 현지 지도에서는 일선 군 부대나 군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와 더불어 군 병력이 투입된 건설 현장에 대한 시찰이 양대 부분을 이루고 있다.⁴³⁾ 특히, 일반 근로자나 당원들이 경제 건설에서 인민군의 '혁명적 군인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군사 책임자이면서도 경제 부문에 대한 지도를 확보하려는 김정일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는 그 자신의 발언과는 달리 경제에 대한 지도 의지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관철되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당이 경제에 대한 지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공백 상태를 메꾸려는 관점보다도 우선 그 지도의 성격 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취임함으로써 그는 경제에 대한

43) 「로동신문」 199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김정일의 현지 지도 관련 보도 참조.

44) 여기서 당이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말은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경제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북한 경제 운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마비된 공식 경제의 회복이며, 이것은 정무원의 권한을 회복·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취임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할 때 그가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조정 기능을 장악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무원 조직에 대해 당 조직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을 뜻할 수는 없다. 중국 등의 예에서도 보듯이 경제 개혁은 경제 분야 행정에 대한 당 권한 내지 간섭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전반적인 운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과거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직결된다. 어쨌든 그는 과거 경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었다고 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하고 있다. 김정일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80년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소비 생활이나 대외 무역에 대한 중시가 그 증거가 된다. 자신이 속도전에서 했던 역할을 감추려 하는 데서 그 스스로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도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과 함께 경제 운영에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란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시기를 늦춰 잡아도 1980년 제6차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북한은 김일성체제에서 김일성·김정일체제로 이행해 있었다. 거의 20여 년에 걸쳐 김정일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김일성과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북한체제를 통치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북한의 국가사회주의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쌓아온 거의

모든 것을 바꿔간다는 것을 뜻한다. 김일성의 수정은 상당 부분 김정일 자신의 수정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우선 김정일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변화를 경제 부문에 한정시킴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경제 부문에 한정된 변화라 해도 변화는 정치적으로 체제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거꾸로 정치에 있어서는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위협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총비서에 취임하면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라는 당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마저 무시한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변화를 위한 태세로서 권력 집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의 모두에서 당대회에 관해 언급한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본다면, 어쨌든 김정일은 스스로 그토록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고 싶었지만 실현시킬 수 없었던 주민 생활 향상에 성공해야만 새로운 당대회를 거쳐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과거의 정치적 역할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에는 경제적으로 개방·개혁이 진행되면서 부딪치게 될 것이다. **統**